

초대의 글

‘한국의 메르스 사태 1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남아 있는가? What's Changed and What Remains 1 year after MERS Outbreak in Korea

지난 해 5월 20일 한국에서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진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공식 상황종료 선언이 있었던 12월 24일 0시까지의 7개월여 동안, 메르스 감염은 총 186명의 환자, 16,752명의 자가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감염 환자 중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신종 감염병이었던 만큼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그만큼 많은 극복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당시 6월, 신속하게 학내 구성원들과의 집담회를 조직하였고 올 2월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태 종료 후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주목해 볼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고도의 국제화 사회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공중보건(public health) 위험은 언제든지 전 사회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르스 사태는 1년이 지난 바로 지금, 모두가 되돌아보며 고민해 볼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기획한 집담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집담회

‘한국의 메르스 사태 1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남아 있는가?

AFTER MERS

일 시 2016년 5월 19일(목) 14:00 ~ 17:00

장 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 61동 320호

1부 메르스 사태 이후 1년의 변화

사회 : 이태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14:00~14:05	개회사	김 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14:05~14:10	축 사	김종서(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14:10~14:15		이윤성(대한의학회장)
14:15~14:20		박병주(대한보건협회장)
14:20~14:35		조성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4:35~14:55	발표2 메르스 경험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	유명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4:55~15:15	발표3 메르스와 사회신뢰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15~15:35	지정토론 최인철(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장덕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5:35~15:45	Coffee Break	

2부 포스트 메르스 사회의 도전

좌장 : 조병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45~16:00	발표1 감염병 유행의 사후 대응: 타국의 사례	탁상우(前 CDC 역학조사관)
16:00~16:15	발표2 앞으로도 문제는 신뢰 소통이다	이철주(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6:15~16:30	발표3 ‘제2의 메르스’ 예방: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측면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6:30~16:45	발표4 메르스, 시민은 어떻게 바뀌었나	김창엽(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6:45~17:00	종합토론 및 폐회	

- 자료집 배포를 위해 이메일(gsph@snu.ac.kr) 또는 전화(02-880-2741)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